



# 2019년 농가평균소득 4,118만2,000원 전년대비 2.1% 하락

출처 : 농림축산식품부



- 2019년 농가소득은 평균 4,118만2,000원으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.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가 평균소득은 2018년 4,206만6,000원에서 2019년 4,118만2,000원으로 2.1%(88만4,000원) 하락했다.
- 일부 농축산물 가격하락과 쌀 변동직불금 지급 지연에 따른 농업수입 감소 영향으로 농업소득이 감소(△20.6%)한 반면, 6차산업화 등 농업외소득은 증가(2.2%)하고 직접지불금 확대, 국민연금 급여 확대 등 소득안전망 확충으로 이전소득이 증가(13.5%)한 영향으로 분석된다.
- 경영주 연령별로는 40대 이하(7.1%증), 50대(0.2%증), 60대(2.2%증) 주력농가 그룹의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, 70대 이상 농가 소득(△3.3%)이 감소함에 따라 평균 농가소득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.

## &lt;농가경제조사 항목별 추이&gt;

(단위: 천원, %)

	2015	2016	2017	2018	2019		증감률 ('19/'18)	
					구성비	구성비		
농 가 소 득	37,215	37,197	38,239	42,066	100.0	41,182	100.0	-2.1
-농업소득	11,257	10,068	10,047	12,920	30.7	10,261	24.9	-20.6
-농업외소득	14,939	15,252	16,269	16,952	40.3	17,327	42.1	2.2
-이전소득	7,906	8,783	8,902	9,891	23.5	11,230	27.3	13.5
-비경상소득	3,114	3,095	3,022	2,302	5.5	2,364	5.7	2.7
농 가 자 산	453,580	474,309	505,881	495,687	-	529,455	-	6.8
농 가 부 채	27,215	26,730	26,375	33,269	-	35,718	-	7.4

## 농업소득



- (채소·과실) 주요 과실·채소류 등 수급 불안 및 태풍에 따른 품위저하에 따른 가격 하락 등으로 채소·과실류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
\* [양파] ('18 평균) 785원/kg → ('19 평균) 594 (전년대비 △24.3%)  
 [사과] ('18 평균) 32,429원/10kg → ('19 평균) 26,299 (전년대비 △18.9%)

- (축산물) '19년 전반적인 축산물 가격 상승 및 농가 생산 증가 등으로 축산분야 수입이 증가했다.

\* 다만, 돼지 생산량은 '18년 대비 증가(2.7%증, 수입량도 증가추세 : '15~'19 연평균 3.9%), ASF 발생에 따른 소비자 기피 심리 등으로 판매가격은 하락(△12.0%)

- 돼지 평균가격: ('18 평균) 4,296원/kg → ('19 평균) 3,779/kg

- (미곡) '19년산 수확기 쌀값이 전년대비 소폭 하락(△1.9%)했다.

\* 수확기 쌀값(원/80kg): ('16) 129,807 → ('17) 153,213 → ('18) 193,568 → ('19) 189,964

- (변동직불금) '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 지연 등으로 농업잡수입은 감소했다.

\* '18년산 쌀 변동직불금(2,544원/80kg, 농가당 17만원 수준)은 공익형직불제 도입관련 국회 논의 등으로 '20년 1월 지급

### (농업경영비)

농업경영비는 재료비(사료비, 비료·농약비), 광열비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5.9% 증가('18:22,837천원 → '19:24,175)한 것으로 조사됐다.

- 배합사료 가격 인상 등으로 사료비는 전년대비 8.4%가 늘었고, 안전관리 강화('19.1월 PLS 시행 등)에 대응한 고가·고활성 농약 판매 증가 등의 이유로 농약비는 7.5% 증가했다.



## 농업외소득



농촌융복합산업 및 농촌관광\* 활성화 등 지속적인 농가소득 다각화방안을 추진한 결과 농업외소득이 1,695만2,000원에서 1,732만7,000원으로 2.2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이 기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수는 1,524개소에서 1,624개소로, 농촌관광객 수는 1,237만명에서 1,307만명으로 증가했다.

\*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수: (18) 1,524개소 → (19) 1,624개소

\*\* 농촌관광객 수: (18) 1,237만명 → (19) 1,307만명

## 이전소득



이전소득은 989만1,000원에서 1,123만원으로 13.5% 늘었다. 직불금 단가 인상\* 및 국민연금 지원 확대\*\*등 공적보조 지원 강화가 농가소득 안전망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.

\* 받고정직불금(만원/ha): (18)50 → (19)55, 조건불리직불금(만원/ha): (18)농지 60, 초지35 → 65,40

\*\* 농업인 국민연금 월평균급여액: (18) 272천원/월 → (19) 289

기초연금 지급 소득기준액(단독가구 기준): (18) 1,310천원/월 → (19) 1,370

○ 한편 2019년 농가 평균 부채는 245만원 증가했으나 자산도 증가(3,377만원)해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6.7%로 동일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.

○ 경영주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 이하에서 7.1%, 50대에서 0.2%, 60대에서 2.2% 증가했다. 그러나 70대 이상 농가 소득은 3.3% 감소했다. 특히 축산 농가 중심의 고정자산 투자로 인한 부채 증가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.

\* 40대 이하부채/자산: (18) 122,335천원/736,823천원 → (19) 145,655/820,810

\*\* 축산농가부채/자산: (18) 103,041천원/877,142천원 → (19) 109,289/980,696



- 앞으로 정부는 주요 농산물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공익형직불제, 재해보험\*\* 등 소득안전망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. 주요 채소류 가격 불안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측체계를 확충하고, 채소가격 안정제\* 를 확대하며 주요품목 의무자조금을 도입할 방침이다.

\* 주요 채소류 약정물량(생산량대비 비율): ('19) 542천톤(12%) → ('20) 700(15%)

- 아울러 농가소득 안정 및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공익형 직불제를 본격 시행(5.1)하고 재해보험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. 또한 FTA 등 시장 개방화 등에 따라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 돼지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FTA피해보전 직불금 요건 충족 여부 등을 분석, 검토 중이다.

※ '18년산 및 '19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은 기 완료('20년 1~2월)



참고

## 경영주 연령별 및 영농형태별 농가수지

### 1. 경영주 연령별 농가수지

(단위 : 천원, %)

	농가소득			가계지출	자 산	부 채
	2018	2019	증감률			
평균	42,066	41,182	-2.1	35,339	529,455	35,718
40대 이하	51,559	55,219	7.1	55,664	820,810	145,655
50대	66,619	66,745	0.2	53,115	605,847	75,133
60대	46,385	47,398	2.2	38,391	582,148	37,390
70대 이상	28,953	27,989	-3.3	26,383	446,561	15,135

### 2. 영농형태별 농가수지

(단위 : 천원, %)

	농가소득			가계지출	자 산	부 채
	2018	2019	증감률			
평균	42,066	41,182	-2.1	35,339	529,455	35,718
논 벼	32,787	30,246	-7.8	27,380	514,758	15,168
과 수	38,016	35,273	-7.2	33,112	584,151	24,533
채 소	30,773	28,844	-6.3	29,764	404,491	24,965
축 산	78,243	75,466	-3.5	40,229	980,696	109,289

